

친노냐 비노냐 원내대표 오늘 경선

새정치, 김동철 등 5명 토론회서 불꽃 대결

후보들 합종연횡·호남의원 결집 여부 변수

7일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5명의 후보들이 6일 민평련, 민집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지 호소하며 불꽃 대결을 벌였다.

각 후보들은 재보선 참패로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공천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광주의 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원내대표 도전 삼수 만에 꿈을 이룰 것인지 주목된다.

◇치열한 경합=이날 토론회에서 최재성 후보(기호 순)는 '정책·전략 주도력'을 가장 앞에 내세우며 "돌파력을 앞세워 패배의 고리를 끊겠다"며 "경제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동철 후보는 '호남 후보'를 무기심야 "총선 공천 물 자제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들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이런 의구심을 제거하겠다"며 "쇄신과 변화로 호남 민심의 지지를 다시 잡겠다"고 약속했다.

설훈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정치를 배워 트레이닝이 잘됐다. 친노와 비노를 모두 감싸 안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조정식 후보는 풍부한 당무 경험을 앞세우면서 "지난 총선 때 아권통합 단장을 맡기도 했다"며 "통합으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총선 공천 물과 관련해 "신진인사를 위해 (전략공천

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후보는 "대표와 이견이 있을 때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 당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 날개를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차기 총선에서 '중진 차출론'은 물론, 4선 이상 중진의 공천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검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핵심 변수=일단 내부적으로는 주류대 비주류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범 친노계에 주류 측으로는 최재성, 조정식 후보가 꼽히고 있고 김동철, 이종걸 후보는 비노에 비주류 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설훈 후보는 중도 진영으로 분류된다.

당내에서는 주류 측이 어떤 후보를 미는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후보들의 평소 친소 관계도 경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후보들의 합종연횡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예비 경선 결과에 따라 밀어주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류와 비주류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 및 중도 의원들의 결집 여부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누가 원내대표에 선출되느냐에 따라 재보선 참패 후폭풍의 진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회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잘해 봅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왼쪽부터),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 원내대표 후보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초청토론회에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비아의 시대는 어디로 갔는가?

신형철 칼럼



이다.

즉, '진정한 삶'을 사유한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사유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더 좋으면 이렇다. '왜 사는가?' 요즘 인기 있는 질문은 아니다. 의미가 아니라 효용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효용을 위한 '노하우(know-how)'이지 의미에 관여하는 '노와이(know-why)'가 아니다.

작년에 출간한 '죽어에서도 인연' 바 있지만 영화 '노에 12년'(2014)의 감독 스티브 맥퀸은 이 영화의 주제가 '서바이브(survive)'와 '리브(live)'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데 있다. '단순한 생존'과 '진정한 삶'이라고 풀어 옮기면 될까?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생존에 만족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이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것이 곧 노예의 삶이라는 것.

대단히 독창적인 논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자주 저 논제의 깊이를 헤아려보고는 한다. 물론 '진정한 삶'은커녕 '단순한 생존'조차 힘겨운 시대를 모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 출산율은 최하위이고 자살률은 1위다. 지경도록 들어온 것이지만 생활수준이 떨어진 지경이다. 가장 적게 태어나고 가장 많이 자살한다는 뜻이다. 생명을 얻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만으로도 꽤 다행인 셈이다. 방송가를 휩쓰는 종인 서바이벌 포맷은 차라리 현실의 순화된 반영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질문해야 한다고 믿는다. 단순한 생존과 진정한 삶의 차이를, 출발은 소박해도 좋다. 생존의 트랙을 정진없이 달리다가 문득 이런 의문을 갖는 때가 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가장 성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조차도 가끔 이런 의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또렷한 증거다. 인간은 의미를 잊고 살 수는 있어도 의미를 빼앗긴 채 살 수는 없다. 다시 굴러 떨어질 바위를 끝없이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가 경험한 것은 바로 무의미의 지옥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서 정렬히 실패하기 위해서다. 자기계발서가 '노하우'를 알려줄 때 인문학 서적은 '노와이'를 알려주지 못한다. 인문학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원래 답이 없다.

지금 내 앞에는 최근에 새로 출간된 릴케(Rilke) 시선집 '두이노의 비가'가 놓여 있다. (이 번역본은 개별하게 아름답다.) 수록작 중 '두이노의 비'는 총 열 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인데, 제비바를 여는 질문이 특히 유명하지만 제비바의 도입부에도 질문이 있다. "토비아의 시대는 어디로 갔는가?" 구약 외경 '토비트서'의 등장인물인 토비아는 그가 함께 걸었던 이가 천사 라파엘임을 알지 못했다. 역자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천사와 인간의 만남이 가능했던 전일(全一)의 시간에 대한 동경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릴케의 시에는 답이 없다. 인간의 언어로 제기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질문이 있을 뿐이다. (물론 그는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질문을 던졌다.) 우리시대 서바이벌리즘의 전도사들은 반문하리라.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릴케의 시 따위를 도대체 왜 읽어야 한단 말인가.' 나의 오랜 대답은 이렇다. '왜냐하면 삶이란 의미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에만 겨우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 대답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를 더 필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4월 30일에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부산 동아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이미 그곳의 수많은 비석이 들려준 80년 5월의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승진 근무성적평가 상하급자 의견 수렴

전남도, 인사제도 개선안

중앙부처 경험 인사 우대

전남도가 중앙부처와 교환근무 등 인사교류 활성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가에 상하급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 여성 공무원의 경력 확대와 생애주기를 고려해 가정과 업무의 병행이 가능한 직위 배치,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교류 활성화 등 인사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가의 공정화와 객관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승진을 위한 평가가 실국직의 주관성이 강

하고 비공개 등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국별 근무성적평가에 상하급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근무성적평가 서열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비공개했던 실국별 평가 결과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열람이 가능토록 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폐쇄적 평가로 인한 불신요인을 제거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여성 공무원의 역량 확대와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남성 공무원이 거의 차지한 행정, 인사, 계약, 감사 담당 등의 직위에 유경험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해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전남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부처와 교환 근무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승진 시 교류 경력자를 최우선에 선발하고, 부단체장 임용에도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환근무 복귀 시 의견을 수렴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군과의 인사 교류는 시군의 인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무관급 교류는 희망 시군에 한해 1대1 인사교류 원칙을 유지하되 도 출신자 간 교류관행을 개선해 시군에서 승진한 사무관과 우선적으로 교류하고, 교류자 선발도 사무관 승진 후 1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자 모집 11일까지 변경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자(팀) 모집 기간을 오는 11일까지로 변경했다.

센터는 ICT 첨단융합형 농수축생산물 분야 등 11~15개 기업을 모집하며 당초 서류 접수 마감일은 13일이었다.

접수는 창조경제타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처를 통한 서면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추진단(061-286-3892)에 문의하거나 창조경제타운 누리집(<http://www.creativekorea.or.kr/contest>)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태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우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우저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랜드 B1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